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후과 책망과 바르게 항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기도 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 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강 3절]

NO	대상자명	관 계	구체적 전도방법	영적수준	비고
1					
2					
3					
4					

수준1) 결신할 수 있음 수준2) 복음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3) 전도자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4) 기독교에 대하여 알지만 부정적임 수준5) 기독교에 대하여 전혀 모름

가정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19절]

1112 1111 1111 1111 1111 100 102					
NO	성 명	기도제목			
1					
2					
3					
4					
5					
6					

교회를 위한 기도

- 1. 한 기홍 목사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2. 선교사님들의 GMI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3. 교회와 사역/행사를 위하여
- 4차 일천번제 특별 새벽기도회(1/22/2024~10/17/2026)
- 중보기도용사의 밤 및 목자부흥의 밤(10/28, 8:00 pm)
- 할렐루야 나이트(10/31)
- 기독영화 감상회(11/1, 5:30pm, 친교실)
- 다민족 연합 기도회(11/2, 4:00pm, VC본당)
- 그룹장 모임(11/13)
- 예손 예배(11/13, 6:00pm, 새가족 환영실)
- 추수감사 특별새벽 부흥회(11/17~22, 강사: 한기홍 목사)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가정교회 예배안 2025. 10. 26

10월 넷째 주: 감당해야 될 이름의 무게 (디모데전서 6:11~12)

Welcome

가을 단풍에 대한 추억을 나누어 봅시다. 또한 지난 주의 Grace Time을 통해 은혜받은 것 중 하나를 나누어 봅시다.

■ 본문: 디모데전서 6:11~12

오직 <u>너 하나님의 사람아</u>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 서론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 담임목사인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최고의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이 본문 외에 단 한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딤후 3: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너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 주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부터 구별된, 성결한 삶으로 합당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 정체성'이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일관되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불러 주신 이름이 가진 의미들에 대해 이해하고 흔들림없는 정체성을 가져서 합당한 역활을 감당해야 합니다.

■ 관찰 질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름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해답 1.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후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신앙의 경주를 온전히 마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예] 담배를 피는 목사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묘사한 이 세상은 5절에서 신앙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한10절에서 돈에 대한 탐욕으로 믿음에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들을 피하고 대신 따라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따른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패하게 만들다', '추격하다'라는 뜻을 갗습니다.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대상을 끝까지 추격하며 따라가라는 말입 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들에게 지지 말고 승리하라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 적용 질문 1

- 1)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 2)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세워야 할 영적 습관은 무엇일까?

해답 2. 하나님의 사람들이 좇아야 할 여섯 가지 덕목(11절)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좇아야 할 것, 따라야 할 것들 -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입니다.

- 1. <u>의</u>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름입니다.
- 2.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와 행동입니다.
- 3. <u>믿음</u>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고, 끝까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 4. 사랑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헌신입니다.
- 5. 인내란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의 본분을 지키는 의지입니다.
- 6. 온유는 겸손으로 자신을 꺽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이란 "자신을 꺾고,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꺾는다'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한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한 그 자리에 오직 전능하신하나님의 의지와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야 할 이 여섯 가지 중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압니다. 더 기도하며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로 나를 불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삶을 위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추격하며 따라가십니다

₩ 적용 질문 2

1) 6가지 덕목 중에 가장 내가 약한 부분, 또 발전시켜 나가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해답 3.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12절)

12절의 "싸우다"는 단어는 경기장에서 열리는 시합이나 전쟁터에서의 싸움을 말합니다. 운동 경기와 전쟁은 이기기 위해서는 모두 대충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와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피할 수 없고 대충해서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진리를 위해 싸워 지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담임목사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과 소유한 것을 누리며 즐기며 사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붙잡으라고, 쥐라고, 움켜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삶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즐기고, 최대한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움직이게 만드는 추진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일이 보이지 않는 광야 한 복판에서, 주저 않았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딤후 4:7에서 그의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 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결국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 적용 질문 3

- 1)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 2) 바울처럼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기 위해 나는 인생의 결말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 기로 결단하는가?

